

偶像 問題에 關한 理論과 實際 (三)

맑스主義者의 一顧를 要함

權九玄

社會主義的 ××은 既成社會의 制度와 및 그 組織을 ××하는 同時에 既成社會의 專有物인 既成觀念까지라도 根本的으로 滅却하지 안흐면 아니 되는 것이니, 卽 이 두 가지의 絶滅이 함께 遂行되지 안는 限에 잇서서는 ××事業은 決코 完成될 수 업는 것이다. 아모리 既成社會의 組織과 制度를 ××하야 다할지라도 既成觀念을 退治치 안는다면 □□의 全治를 努力하면서 病菌을 滅却치 안는 것과 다름이 업는 것이니, 그것은 既成社會 組織과 類緣한 社會制度를 暗然히 復活케 할 要素를 남겨두는 것이다.

露西亞에서는 이 點에 對하야서도 相當히 注意하야 왔다. 卽『푸로레트칼트[프로레트쿨트]』의 施設이 그것이다. 그것에 依하야 科學, 藝術, 敎育, 倫理 등을 變改함에 만흔 努力을 하야왔슴은 世間이 다 아는 事實이다. 그러나 쾰르조아 既成觀念의 最惡한 特長인 個人崇拜 ---卽 偶像崇拜의 習性 乃至 心理를 社會的으로 그대로 殘在케 한다는이 보다도 차라리 抑揚함과 如함은 實로 過大한 價値를 付與하야 쾰르조아 社會서 그것과 가티 個人的 氏名을 紀念한다는 것은 理論과 實際를 莫論하고 그 自體의 宗旨에 背□한 行爲라 아니할 수 업는 것이다.

웨 그러나 하면 無產階級의 運動은 世界的 創造的 本能에 基因한 內容을 가진 卽 自發的 ××的 成育運動이오, 決코 幾個人을 中心으로 한 義狹士의 運動도 아니오, 中心 歸聚의 寡頭政治的 運動도 안이다. 다시 말하면 個人性을 滅却한 卽 個人的 氏名の 抑揚이며 功蹟 其他 榮譽 등을 一部 小數者에게 歸屬식힐 아무려한 理由도 업는 最大限數의 無名運動이 안이면 안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決코 意識的으로 맑스나 레-닌의 功果를 中傷하거나 毀損하려고 하지 않는다. 露西亞 革命에 잇서서 레-닌의 功勞가졌던 것이며 理論家로서의 맑스의 活動이 또한 偉大하였든 것을 決코 否定하지 않는다. 勿論 레-닌이나 當時 트로츠키 等은 그의 革命遂行에 잇서서 端的 役割을 다하였다. 그러나 無名의 赤衛兵士도 個人과 個人이 모다 端的 役割을 다한 點에 서서 레-닌이나 트로츠키 等이 아무려한 差別도 업는 것이다. 全部가 端役者인 同時에 主役者로서의 役割을 다 안이 하였다고 할 수 업는 것이다.

한 例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演劇을 行함에 잇서서 必要에 依하여 舞臺監督이나 化粧監督이 잇게 되었다고 하자. 그러타고 劇全體를 爲하여 그들에게 役者 以上の 價値나 쏘는 功勞를 돌려보낼 理由가 무엇이며, 쏘 戲曲 原作者或은 脚色者에게 맞찬가지의 役者 以上の 待遇와 尊敬을 表할 理由가 어데 잇느냐?

露西亞 革命에 잇서서 맑스는 戲曲을 提供한 者에 不過하며 레닌은 脚色 쏘는 舞臺監督의 役割을 하였슴에 不過한 것이니, 赤衛員의 一兵卒과 함께 革命 遂行의 過程의 功勞와 結果的 價値에 잇서 何等의 等分이 업는 卽 모다가 端役者임에도 不拘하고 레-닌 等 幾個人만을 待遇하여 露西亞 大革命 事業의 功勳과 榮譽를 獻하며 名譽와 紀念을 嗜好하는 썩르조아의 常套 처를 그의 氏名을 都市 其他에 登錄하여 紀念할 必要가 무엇이나?